

## [두산아트스쿨: 미술] 현대미술과 도시 기행: 시민 사회의 탄생 (양정무)

### 3/23 2강 빈과 베를린: 모더니즘 미술의 대전환

- 클림트와 에곤 쉴레, 아르누보/유겐스틸, 독일 표현주의, 칸딘스키와 바우하우스

○ 벨 에포크(Belle Époque, 좋았던 시절): 1871 년 이후부터 제 1 차 세계대전 발발(1914) 직전까지 유럽 사회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한껏 누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시대 용어

#### 오스트리아

○ 빈(Wien): 영어 / 비엔나(Vienna): 이탈리아어  
합스부르크 신성로마제국의 수도 /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

○ 빈 '링슈트라세(Ringstrasse)': 빈을 방어하던 성벽과 해자를 허물고 낸 폭 57m, 총 길이 4 km의 순환대로

○ 역사주의 건축물: 빈 시청사(네오 고딕),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(신고전주의), 궁정극장(네오 바로크), 빈 미술사박물관, 빈 대학(네오 르네상스)

○ 구스타프 클림트(Gustav Klimt, 1862-1918)  
- 시민극장 벽화(로미오와 줄리엣): 빈미술사박물관 벽화(고대 문명)  
- 빈 대학 대학의실 벽화(철학, 의학, 법학), 1899  
- 구 시민극장, 1888/9  
- <베토벤 프리즈>, 1902  
- <아델레 블로어-바우어의 초상>, 1907  
- <키스>(알마 신들러/말러), 1907

○ 코코슈카(Oskar Kokoschka, 1886-1980)  
- <바람의 신부>, 1913-1914

○ 에곤 쉴레(Egon Schiele, 1890-1918)  
- 자화상  
- <가족>, 1918

○ 빈 분리파 건물  
오토 바그너(Otto Koloman Wagner, 1841-1918): 유겐스틸(Jugendstil: 빈 아르누보)  
- 마올리카 하우스, 1898

- 칼스플라자 역사, 1899(빈 도심 기차역 프로젝트)
- 우체국 저축 은행본사, 1903

## 독일

- 베를린 뮤지엄신젤(박물관 섬, Museum Island): 훔볼트 포럼, 2022
- 낭만주의: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(Caspar David Friedrich, 1774–1840), <바다의 방랑자>, 1818
- 다리파/독일 표현주의: 키르히너(Ernst Ludwig Kirchner), 에밀 놀데(Emil Nolde)
- 키르히너(Ernst Ludwig Kirchner, 1880–1938)
  - <드레스덴 거리>, 1908
  - <모리츠버그의 물놀이>, 1909–26
  - <군인 모습의 자화상>, 1915
- 에밀 놀데(Emil Nolde, 1867–1956)
  - <가면>(Masks), 1911
  - <예수의 생애>, 1911–1912
- 오토 딕스(Otto Dix, 1891–1969)
  - <상이용사>, 1922
  - 동판화 <돌격대가 가스를 뚫고 전진하다>, 1924
  - <전쟁 제단화>, 1929–1932
- 다다와 초현실주의
- 바우하우스, 1919–1933
- 퇴폐미술전 VS. 위대한 독일미술전, 1937
- 카셀 도쿠멘타(Kassel Documenta), 1955–
- 독일신표현주의
  - 안젤름 키퍼(Anselm Kiefer, 1945–), <Orders of the Night>, 1996
  - 바셀리츠(Georg Baselitz, 1938–), <가르니 호텔> 연작
- 게르하르트 리히터(Gerhard Richter, 1932–), <루디 삼촌>, 1965